
국립국어원 소식

1. 주요 행사 및 회의 개최

가. 한글날 국경일 승격 첫해, 560돌 기념행사

1) 국립국어원, 강서구 주민 초청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와 강서구청과 업무 협정 체결

국립국어원에서는 국경일로 제정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체 축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행사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관련 행사를 가짐으로써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다.

○ 일시: 2006. 10. 9.(월) 16:00

○ 장소: 국립국어원 1층 대강당

○ 참석자: 신기남 국회의원, 김도현 강서구청장, 강서구 의회 의원, 강서구 주민자치협의회, 강서문인회, 강서서예인협회 등 150명과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 이하 전 직원

○ 행사 내용:

- 한글날 국경일 승격 기념 축하 인사: 이상규 국립국어원장, 신기남 강서구 국회의원, 김도현 강서구청장
- 한글날 기념 동영상 상영(CEO 세종, MBC 2005년 특집 프로그램)
- 업무 협정 체결(국립국어원·강서구청)
- 다과회

한글날 행사에 이어서 국립국어원과 강서구청 간의 업무 협정식도 이

어졌다. 이번 업무 협정 체결을 통해서 향후 국립국어원과 강서구청 사이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연구·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주민과 소속 공무원 등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서구 주민·공무원 대상 교육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관 간 업무 협조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한글날 국경일 제정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신기남 의원 및 강서구청장과 강서구 의회 의원, 강서구 주민자치협의회, 강서문인협회, 강서서예인협회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고, 국립국어원 국어진흥팀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상규 원장의 축사와 신기남 의원, 김도현 강서구청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기념식이 끝난 후 곧바로 업무 협정식이 이어졌는데, 손희하 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장의 업무협정서 낭독 이후 국립국어원장과 강서구청장 간의 서명으로 업무 협정이 체결되었다.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종료된 후 7층 식당에서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무지개떡과 편육, 음료 등을 나누며 행사를 마쳤다.



국립국어원, 강서구 주민 초청 한글날 기념행사



국립국어원장과 강서구청장의 업무 협정 체결 모습

2) 2006 한글발전유공 포상 및 제25회 세종문화상 시상

한글발전유공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10월 9일(월)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훈민정음 반포 560돌 ‘한글날 기념식’에서 거행되었다. 그리고 세종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이날 오후 2시 문화관광부 장관실에서 이어졌다.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한글발전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해 왔다. 한글발전유공 포상은 우리 민족 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말과 글의 연구, 교육,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세종문화상은 올해로 제25회를 맞는 전통 있는 상으로, 위대한 문화 시대를 꽃피운 세종대왕의 정신과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민족 문화, 학술, 교육, 통일 외교, 사회봉사 등 5개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부문별 각 1,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서 대통령상장과 함께 1,000만 원의 부상이 따른다.

올해 영예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한글발전유공자】

보관문화훈장 - 데이비드 맥캔(David McCann)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옥관문화훈장 - 김영기(金榮起)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어문학과 교수

문화포장 - 김용귀(金容貴)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학술정보지원

과장

문화포장 - 유은종(劉銀鐘) 웨슈(越秀)외국어대학 동방언어학원 부원장

문화포장 - 도야마 요시히로(外山 吉廣)시바타시 한국어강좌회 회장

대통령표창 - 법제처(法制處)

국무총리표창 - 이대로(李대로) 한글날 큰잔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번 한글발전유공자 포상의 특징은 우리말, 우리글의 연구·교육 및 해외 보급, 세계화 등 우리말, 우리글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포상자는 모두 7명인데, 4명(외국인 2, 재외 동포 2)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3명(기관 1 포함)은 국내인으로 선정되었다.

나) 【세종문화상】

부문	성명	연령	소속 및 직위	비고
민족 문화 부문	(사)한글문화연구회	-	민간 단체	단체
학술 부문	임기중(林基中)	68세	동국대 명예 교수	개인
교육 부문	김진식(金振植)	57세	합동참모본부 행정군무 서기관	개인
통일 외교 부문	대한민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제239특수비행대	-	대한민국 공군	단체
사회봉사 부문	한글문화연대	-	민간단체	단체



한글발전유공자 가족, 국립국어원, 한국어 관련단체장(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학회 등)



한글 발전 유공자(왼쪽에서부터 데이비드 맥켄, 유은종, 김용귀, 도야마 요시히로, 김영기)

3) 한글날 국경일 승격 기념 국외 석학 초청 학술 토론회 개최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과 국립국어원은 한글날 국경일 승격 기념으로 국외 석학 초청 학술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가. 회의명: 한글날 국경일 승격 기념 국외 석학 초청 학술 토론회

나. 일시: 2006년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다.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1층)

라. 주최: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 국립국어원

마. 후원: 한글날 큰잔치 조직위원회

바. 참가자 및 진행 순서:

○ 인사말

- 신기남(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 대표)
- 이계진(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
- 이상규(국립국어원 원장)

○ 사례 발표

- ‘한국어 국외 보급의 현황과 과제’ 김영기(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어문학과 교수)
- ‘한글날 국경일에’ 유은종(중국 저장(浙江)성 웨슈[越秀] 외국어대학교 동방언어학원 부원장)

○ 특별 발표

- ‘한국어의 세계화’ 추진 전략(기본 구상안) 이장협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장)

○ 토론

- 박영순(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 권재일(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 유승금(한림대학교 한국어센터 소장)
- 정희원(국립국어원 한국어보급팀장)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과 국립국어원은 한글날 국경일 승

격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의 석학에게 듣는다-한국어 국외 보급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의 대표인 신기남 의원과 회원인 이계진 의원, 2006년도 한글 발전 유공자 정부 표창을 수상한 김영기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수, 유은종 중국 웨슈 외국어대학교 동방언어학원 부원장, 그리고 국어 정책 수립 기관인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 등이 참석하여 한글날 국경일 승격을 축하하고 한국어 국외 보급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 인사말에서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 대표인 신기남 의원은 지금까지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앞으로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하였다. 이어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은 늘어난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런 자리가 한국어 보급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인사말에 이어 미국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어문학과 김영기 교수가 ‘한국어 해외 보급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100여 년이 되는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역사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 및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정부 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례 발표자였던 중국 웨슈 외국어대학교 동방언어학원 유은종 부원장은 ‘조선말맞춤법사전’ 편찬 및 중국 내 조선족 문화유산을 발굴·정리한 ‘언어사’, ‘예술사’ 등의 발간, ‘남북 언어 통일 사업’에 참여한 자신의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 사례 발표에 이어 국립국어원 이장협 기획관리과장은 현재 국어원에서 구상 중인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10년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발표 후에는 발표자 3명이 토론자 4명과 함께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국외 석학 학술 토론회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된 첫해에 국회의원회장과 국립국어원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 해외 보급을 위해 논의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한글날 국경일 승격 기념 국외 석학 초청 학술 토론회’ 발표자와 토론자 모습

을 것이다.

4) 훈민정음 반포 560돌 기념 디지털 한글 국보·보물 특별전 개최

디지털 한글박물관(관장 박영순)에서는 올해 훈민정음 반포 560돌을 맞아 특별전을 기획하였다. 첫 특별전인 이번 전시회에서 그동안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한글 관련 문헌 중 국보·보물급에 해당하는 귀중본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글 국보·보물 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가장 오래된 한글 서적이면서도 보존 상태가 완벽한 국보 292호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 의서로 인정받고 있는 보물 1,085호 동의보감, 조선 전기 훈민정음 연구와 불교학 및 문헌학 연구에 필요한 보물 745호 월인석보 등 19종의 한글 귀중 문헌을 만나 볼 수 있다. 각 문헌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 각각 불교관, 의학관, 문학관 등 3개관으로 나누어 전시한다.

‘한글 국보·보물 특별전’은 실제로 박물관을 방문하여 불교관, 의학관, 문학관 각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자료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각



디지털한글박물관 영상 자료

전시관의 주제에 맞게 가상 전시관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방문객은 가상 전시관을 방문하여 쉽게 보기 어려운 국보 및 보물의 모습을 상세하게 볼 수 있다. 또한 문헌마다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기 때문에 한글 귀중 문헌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다.

디지털 한글박물관은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이버 박물관이다. 지금까지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글 고문헌 자료 880여 종 10만 2,000여 면에 대한 원문과 해설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디지털 자료로 축적해 오고 있으며 이를 웹 사이트(<http://www.hangeulmuseum.org>)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국어심의회 개최

1)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가. 회의명: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회

나. 일시: 2006년 9월 27일 수요일 16시~20시

다. 장소

1) 전체 회의: 국립국어원 중1층 세미나실

2) 분과 위원회 회의: 국립국어원 중1층 세미나실(국어 순화 분과),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어문규범 분과), 국립국어원 7층 회의실(언어 정책
분과)

라. 회의 안건

-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장 선출
- 국어심의회 향후 운영 방향 논의
-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 검토
- 3개 분과 위원회 회의 개최

국립국어원은 9월 27일 국어심의회 운영 이래 최초로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어심의회는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개편·운영되어 왔었다. 새로 개편된 국어기본법에는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각 분과별 위원장만 선출하여 운영해 왔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어심의회의 3개 분과 위원장이 모여 국어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9월 27일 전체 위원회를 열어 전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난 후 향후 국어심의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전체 위원회의 인사말에서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은 그동안 최종 시안을 검토했던 국어심의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전체 위원장 선출이 있었는데 전체 위원장에는 대구 가톨릭대 총장을 지냈던 김수업 선생님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현재 언어 정책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윤표 선생님이 선출되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수업 선생님은 국어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각 분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분과 소위원회가 필요하며 분과별로 전문적인 사안의 검토를 위해서는 실무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들은 분과별로 5명 이하로 분과 대표단을 두어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검토를 마친 후 각 분과별로 모여 분과 대표단을 선출하고 분과별 의제에 토론을 벌였다.

이번 국어심의회는 국어심의회가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가진 첫 모임이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국립국어원은 국어심의회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가. 회의명: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나. 일시: 2006년 10월 27일 금요일 14시~16시

다. 장소: 국립국어원 내 2층 회의실

라. 회의 안건

- 국어심의회 운영 방향 및 세칙 논의
-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 검토
- 성씨 ‘柳’의 한글 표기 검토
- 로마자 표기법 검토(김복문 명예 교수 제출안)
- 외래어 표기법 검토(나라 말글 바로 하기 모임 제출안)

국립국어원은 지난 9월 27일 국어심의회 각 분과 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이 참여한 소위원회 회의를 10월 27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의 보완,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 전체 회의에서 국어심의회(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체 내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바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의 소위원회 이름을 실무위원회로 바꾸어 운영하기로 하고, 특정 분

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자세한 내규는 다음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에 대해서는 목표와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별 추진 방향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대 중점 과제와 10개 과제는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제시하고 이들 과제 속에 영어에 대비한 정책도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다. 더불어 이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립국어원을 더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시안은 수정·보완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실무위원회가 검토하고 국어심의회 위원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유 모 씨의 호적 정정 신청으로 사회 문제화된 성씨 ‘柳’의 한글 표기 문제와, 국어심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로마자 표기법 문제(김복문 명예 교수 제출안)’, ‘외래어 표기법 문제(나라 말글 바로 하기 모임 제출안)’ 등의 문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문제에 관해서는 성격상 실무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회의 모습(1)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추후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3)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국립국어원은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가) 회의명: 국어심의회 제2차 실무위원회

나) 일시: 2006년 11월 21일 화요일 18시~20시 30분

다) 장소: 국립국어원 내 2층 회의실

라) 회의 안건

- 국어심의회 운영 방향 및 세칙 논의
-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의 보완
-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 검토
- ‘우금치/우금티’ 표기 문제

국립국어원은 지난 11월 21일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의 보완,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 ‘우금치/우금티’ 표기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이 협력하여 금년 내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보완할 수 있는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운영 세칙에는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 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어심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①항에 명시한 간사, 서기를 국립국어원에 정식 요청하기로 하였고 국어심의회 2007년도 사업 계획도 수립하여 예산을 국립국어원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에 대해서는 제목 앞에 얹혀 있는 ‘한국어의 문화 창조 역량 강화와 세계화’를 부제로 하고 10대 추진 과제는 4~5개 정도의 중간 과제로 묶어서 그 아래에 다시 세부 과제를 기술하는 등 일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회의 모습(2)

부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시안에 부적절한 용어 사용과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표현도 적지 않은바 국립국어원이 이를 더 보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번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은 3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웹상으로라도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에게 공람할 기회를 주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줄 것도 주문하였다. ‘우금치/우금티’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원적으로는 ‘우금티’가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어원을 중시하여 현재 널리 쓰이는 어형을 버리고 고어화된 역사형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명 자체는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우금치’를 그대로 쓰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우금티기념사업회’ 같은 기구의 이름은 고유 명칭이므로 국어심의회의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금티’가 20세기 초반 일본 사람들에 의해 ‘우금치’라는 한자로 음차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4) 2006년 국어심의회 어문 규범 분과위원회 회의

가) 일시: 2006년 11월 28일(화) 17:00~19:00

나) 장소: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

다) 참석자

○ 국립국어원: 이상규(원장), 김세중, 이승재, 조태린

○ 국어심의회 위원: 정국, 박창원, 박헌순, 이화연, 성낙희, 오수경

라) 논의 내용

○ 어문 규범 분과위원회 내 연구위원회 설치 관련

- 현행 어문 규범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2개의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 연구위원회별로 필요한 인원을 정하고, 위원 후보를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추천받기로 함.

○ 맞춤법, 표준어, 한자음 연구위원회: 7명(위원장 1명, 맞춤법 2명, 표준어 2명, 한자음 2명)

○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연구위원회: 5명 (위원장 1명, 외래어 2명, 로마자 2명)

○ 2개의 연구위원회는 어문 규범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함.

○ 연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비정규직 간사보조원)과 예산(위원 연구비)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과 협의하기로 함.

○ ‘우금티/우금치’ 표기 민원 관련

- 우금치’를 ‘우금티’로 변경할 국어학적 근거는 없음.

- 15세기에 ‘-디’, ‘-티’는 음운 변화에 따라 모두 ‘-지’, ‘-치’로 바뀌었고, 지금 남아 있는 ‘-디’, ‘-티’는 옛날에는 ‘-디’, ‘-티’였기 때문에 ‘-지’, ‘-치’로 바뀌지 않은 것임.

○ 성씨 ‘류’의 표기 관련

- 어문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류’는 ‘유’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임.

- 규정을 개정할지 여부는 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로마자 표기법 민원 관련

- 다음 회의에서 20분간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함.

○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검토

- 다음 회의에서 20분간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함.

○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검토(2)

- 다음 회의에서 20분간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함.

○ 기타 사항:

- 다음 회의는 12월 20일에 하기로 함(시간은 추후 결정).

다. 언어 정책 토론회와 초청 특강과 혁신 회의

1) 2006년도 제8회 언어 정책 토론회

국립국어원에서는 2006년도 제8회 언어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가. 주제: 알타이 언어 현지 조사의 의의와 방법

나. 발표자: 김주원(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다. 일시: 2006년 9월 29일(금요일) 15:00~17:00

라. 장소: 국립국어원 중1층 세미나실

발표를 통해 김주원 교수는 알타이 언어 현지 조사의 의의가 절멸 위기에 처한 언어에 대한 연구로서 형식주의 이론 언어학을 벗어나 ‘의무를 다하는 언어학’ 즉 인간의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언어학의 길을 모색한다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 교수는 언어 절멸의 의미와 현황, 칼미크 어, 부랴트 어 등의 언어 위기의 사례, 절멸 위기의 언어를 보존하려는 세계 언어학계의 노력 등과 함께 한국알타이어학회의 활동과 REAL 프로



김주원 교수 발표 모습

젝트에 대해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김 교수는 알타이 언어 현지 조사의 방법과 과정을 다양한 사진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고, 자료의 가공(디지털화), 언어 기술과 원본 파일의 압축 및 보관, 음성 영상 정보 웹 서비스 구축 등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보여 주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알타이 언어의 조사와 한국어의 계통을 밝히는 문제와의 관련성, 어휘·문법 중심의 조사를 구술 발화 조사를 통한 문화 연구로 발전시키는 문제, 현지 조사를 위한 예산 및 인력 동원 문제, 질문지의 구체적 내용과 작성 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2) 2006년도 제9회 언어정책 토론회

국립국어원에서는 2006년도 제9회 언어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가. 주제: 신세대 대중 문화의 이해

나. 발표자: 이승재(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다. 일시: 2006년 11월 10일(금요일) 15:00~17:00



이승재 기자의 발표 모습



이승재 기자의 발표를 듣는 국립국어원 직원 모습

라. 장소: 국립국어원 중1층 세미나실

다양한 사진 및 영상 자료와 함께 진행된 발표를 통해 이승재 기자는 신세대라고 불리는 집단에서 사용되는 언어 표현(SS501, 무플, 올짱, 된

장녀, 당연하지, 슈퍼주니어, 김본좌, KIN 등), 소비 성향, 관심 분야 등을 소개하면서 신세대 문화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신세대 문화와 인터넷 문화의 구별 필요성, 신세대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3) 2006년도 언어 정책 토론회 3차 초청 특강

2006년도 언어 정책 토론회 3차 초청 특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가. 주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한국어, 한국 문화의 미래
- 나. 발표자: 배기찬(대통령 비서실 동북아시아위원회 비서관)
- 다. 지정 토론자: 이준석(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 라. 일시: 2006년 11월 22일(수요일) 14:00~16:00
- 마. 장소: 국립국어원 4층 대회의실

4) 국립국어원 제4차 혁신 회의 개최

- 가. 주제: 21세기 세종계획 후속 사업
- 나. 발제: 조남호 학예연구관(국어정보화팀장)
- 다. 때: 2006년 10월 31일(화요일) 14:00~16:00
- 라. 곳: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

국립국어원 제4차 혁신 회의는 국어정보화팀장인 조남호 학예연구관이 기조 발제를 한 후 이와 관련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으로 진행되었다. 조남호 학예연구관은 크게 21세기 세종계획 성과, 국어 정보화의 과제 및 활용, 21세기 세종계획 후속 사업 계획 등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는데, 특히 21세기 세종계획 후속 사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국어 정보화 산업계 상황 등에 대해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김세중 국어생활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에 대한 반성과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의 활용 방안, 21세기 세



제4차 혁신회의의 열띤 모습

중계획 후속 국어 정보화 사업 수립 관련 고려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4차 혁신 회의는 현행 국립국어원 국어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라. 국립국어원, SBS와 공동으로 발표회 개최

국립국어원과 SBS는 “방송 언어의 경어법 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2006년 방송 언어 공동 연구 사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는 연구자 및 방송인,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방송 언어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개최: 국립국어원·SBS
- 때: 2006년 10월 13일(금) 오후 4:00~7:00
- 곳: SBS 목동 사옥(13층 공개홀)
- 발표 주제: 방송 언어의 경어법 개선을 위한 연구
- 발표 제목과 발표자



“방송 언어의 경어법 개선을 위한 연구” 발표회에 참석한 사람들

- 임동훈(한림대): 방송 언어와 경어법
- 정희창(국어원): 프로그램별 내레이션의 경어 사용 태도 분석
- 김한샘(국어원): 경어법의 변화 양상 분석
- 이운영(국어원): 사회자 발화에 나타난 경어법 분석
- 손범규(SBS): 방송 언어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의식 조사
- 정미선(SBS): 호칭어 ‘님’과 ‘씨’의 사용 분석
- 문규원(서울대): 방송 언어에서의 주체 과다 높임 현상

마. 제72차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심의 결정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위원장: 이상규 국립국어원장)는 11월 1일 낮 12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제72차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를 열고, 노벨상 6개 부문 수상자와 일본 아베 연립 내각, 총리 보좌관들의 이름을 심의하여 이들의 한글 표기를 통일해서 적기로 했다. 타이 육군 사령관은 ‘손티 분야랏끌린(Sonthi Boonyaratglin)’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동 공동 위원회에서는 미얀마의 새로운 수도의 이름을 ‘네

피도'로, 타이의 신국제공향을 '수완나폼'으로 통일하여 적기로 했다. 허리케인 이름도 추가로 심의했는데, 엘버토(Alberto)와 어네스토(Ernesto)로 각각 표기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한 40여 용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2차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심의 결정안

[인 명]

- 구젠바워, 알프레트 Alfred Gusenbauer 1960~오스트리아 정치가. 사회 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Österreichs=SPÖ) 당수(2000. 4. ~). 연방 의회 (상원) 의원(1991. ~1993.), 1993년 국민 의회 (하원) 의원. 2000년 1월 당 간사장.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제40차 결정안인 '구젠바우어, 알프레트'를 변경함.
- 나가세 진엔 長勢甚遠 1943~ 일본 정치가. 법무상(2006. 9. 26. ~). 전 관방부 장관, 법무부상, 중의원 법무 위원장. 중의원 6선.
- 나카야마 교코 中山恭子 1940~ 일본 외교관. 총리 보좌관(납치 문제 담당, 2006. 9. ~). 여성. 전 유엔 개혁 지역 담당 대사, 우즈베키스탄 겸 타지키스탄 대사. 전 내각관방 참여, 재무부 시코쿠(四國) 재무국장.
- 네모토 다쿠미 根本 匠 1951~ 일본 정치가. 총리 보좌관(경제 재정 담당, 2006. 9. ~). 전 중의원 경제 산업 위원장. 중의원 5선.
- 다카이치 사나에 高市早苗 1961~ 일본 정치가. 오키나와북방 담당상(2006. 9. 26. ~). 전 통산 정무 차관, 경제 산업부상, 중의원 문부 과학 위원장. 긴키(近畿)대 교수. 중의원 4선.
- 레인펠트, 프레드리크 Fredrik Reinfeldt 1965~ 스웨덴 총리. 보수당 당수(2003. 10. ~). 스톡홀름 태생. 1991년 의회에 진출. 1992년 우파 조직 청년 동맹 의장으로 선출. 정치인 부인 필리파(Filippa)는 스톡홀름 교외 행정구의 수장.
- 레위스 (나바로), 사무엘 Samuel Lewis (Navarro) 1957~ 파나마 외교관. 제1부통령(2005. 5. ~) 겸 외교부 장관(2005. 9. ~). 증조부, 조부, 부친 모두 외교부 장관 출신으로 외교관 집안.
- 뤼텔, 아르놀트 Arnold Rüütel 1928~ 에스토니아 정치가. 대통령(2001. 10.

~2006. 10.). 1983년 소련 에스토니아 공화국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에 선출, 헌법 제정 회의 멤버(1991.~1992.), 1995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후 첫 국회의원에 당선, 에스토니아 국민 동맹(구농민당) 당수(1994.~2000.).
※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제44차 결정안인 ‘루텔, 아르놀드’를 변경함.

·**마쓰오카 도시카쓰 松岡利勝 1945~ 일본 정치가.** 농림수산상(2006. 9. 26. ~). 전 농수부상, 중의원 농수 위원장. 중의원 6선.

·**매더, 존 John C. Mather 1946~ 미국 물리학자.** 미 항공 우주국(NASA) 고더드(Goddard) 우주 비행 센터 물리학 박사. 1989년 쏘아 올린 관측 위성 ‘코비(COBE)’의 책임 연구원. 우주 배경 복사의 불균일성 발견으로, 2006년 노벨 물리학상을 조지 스무트(George Smoot)와 공동 수상(10. 3.).

·**메일러, 노먼 (킹즐리) Norman (Kingsley) Mailer 1923~ 미국 작가, 시인, 저널리스트.** 전쟁 체험 소설 “나자와 사자”(1948)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지위를 확립. “미국의 꿈”(1965), 논픽션 “밤의 군대”(1968, 풀리처상과 전 미 도서상 수상), “사형 집행인의 노래”(1979, 두 번째 풀리처상 수상). 국제 작가 조직인 펜(PEN)의 미국 회장(1984.~1986.). 부시 정권의 이라크 전을 비판한 “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가”(2003), 히틀러의 삶을 묘사한 “숲 속의 성”(2007년 간행 예정).

·**멜로, 크레이그 Craig C. Mello 1960~ 미국 과학자.**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 두 가닥으로 이뤄진 ‘이중 나선 리보 핵산(RNA)’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는 ‘아르엔에이(RNA) 간섭’ 현상을 선충(線蟲)에서 발견한 업적으로, 2006년 노벨 의학생리학상을 앤드루 파이어(Andrew Fire)와 공동 수상(10. 2.).

·**미조테 겐세이 溝手顯正 1942~ 일본 정치가.** 국가 공안 위원장 겸 방재 담당상(2006. 9. 26. ~). 전 히로시마(廣島)현 미하라(三原) 시장. 통산 정무 차관, 참의원 의원 운영 위원장, 참의원 총무 위원장, 참의원 국토·환경 위원장. 참의원 3선.

·**베켄바워, 프란츠 Franz Beckenbauer 1945~ 독일 축구 선수감독.** ※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제22차 결정안인 ‘베켄바우어, 프란츠’를 변경함.

·**사타 겐이치로 佐田玄一郎 1952~ 일본 정치가.** 행정 개혁 겸 규제 개혁 담당상(2006. 9. 26. ~). 전 중의원 의원 운영 위원장, 중의원 총무 위원장. 우정 정무 차관, 총무부상. 중의원 6선.

·**세코 히로시게 世耕弘成 1962~ 일본 정치가.** 총리 보좌관(홍보 담당, 2006. 9. ~). 전 참의원 총무 위원장. 일본 전신 전화(NTT) 보도 담당 과장. 참

의원 2선.

·**손티, 분야랏끌린 Sonthi Boonyaratglin 1947~ 타이 육군 사령관.** 2006년 9월 19일 일어난 쿠데타의 주모자. 국가 치안 평의회 의장. ※ 2006년 9월 20일 현재 국군 최고 사령관 트앙룻 마하사라논(RUENGROJ Mahasaranont), 해군 사령관 사티라판 껀야논(SATIRAPAN Keyanon), 공군 사령관 찰릿 푸파숙(CHALIT Pukbhasuk)

·**수라윳, 쯔라논 Surayud Chulanont 1943~ 타이 총리.** 전 국군 최고 사령관. 추밀원 의원. 쿠데타로 망명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후임으로 잠정 총리로 취임(2006. 10. 1.).

·**스가 요시히데 菅 義偉 1948~ 일본 정치가.** 총무 우정 민영화 담당상(2006. 9. 26. ~). 전 총무부상. 중의원 4선.

·**스무트, 조지 George F. Smoot 1945~ 미국 물리학자.** 캘리포니아대 교수. 관측 위성 ‘코비(COBE)’의 책임 연구원. 우주 배경 복사의 불균일성 발견으로, 2006년 노벨 물리학상을 존 매더(John Mather)와 공동 수상(10. 3.).

·**스위니, 존 John J. Sweeney 1934~ 미국 AFL-CIO 위원장.** 1995년 10월 25일 선출된 이래 네 번 연속 선출, 연임. 미국 노동 총동맹 산업별 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는 1955년 AFL과 CIO가 합병, 발족한 세계 최대의 노동 단체.

·**시오자키 야스히사 鹽崎恭久 1950~ 일본 정치가.** 관방·납치 문제 담당상(2006. 9. 26. ~). 전 외무부상, 중의원 법무 위원장. 중의원 4선, 참의원 1선.

·**아널드, 맬컴 (헨리) Malcolm (Henry) Arnold 1921~2006 영국 작곡가.** 영화 ‘과이강의 다리’에서 아카데미상 작곡상 수상(1957). 영화 음악 130여편 외에 9곡의 교향곡과 20편의 협주곡, 오페라와 발레 음악, 수많은 성악곡, 합창곡, 실내 악곡 등 넓은 분야에서 작곡.

·**안데르손, 스텐 Sten Andersson 1923~2006 스웨덴 외교관.** 사회 민주 노동당의 중진으로 외교부 장관(1985. ~ 1991.) 시절 중동 평화에 전력.

·**아마모토 유지 山本有二 1952~ 일본 정치가.** 금융 제도전(첼린지) 담당상(2006. 9. 26. ~) 전 변호사. 재무부상, 중의원 법무 위원장. 중의원 6선.

·**아마타니 에리코 山谷えり子 1950~ 일본 정치가.** 총리 보좌관(교육 재생 담당, 2006. 9. ~). 여성. 전 내각부 정무관, 산케이 리빙 신문 편집장. 참의원 1선, 중의원 1선.

·**오타 히로코 大田弘子 1954~ 일본 경제 재정상.** 여성. 전 내각부 정책 통관. 정책 연구 대학원대 교수. 2006년 9월 현직.

·**유누스, 무함마드 Muhammad Yunus 1940~ 방글라데시 빈곤 퇴치 운동가.**

그라민(Grameen) 은행 총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금융 제도(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통해 빈곤층과 여성 등에게 자활의 길을 열어 주어 경제·사회적 발전에 힘쓴 공로로, 그가 설립한 그라민(농촌) 은행과 함께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10. 13.). 2006년 제8회 서울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10월 19일 신라 호텔에서 시상.

·**일베스, 토마스 헨드릭 Toomas Hendrik Ilves 1953 ~ 에스토니아 대통령.** 스웨덴 태생의 미국 이민. 유럽 의회 외교부 위원장. 외교부 장관(1995. 11. ~ 1998. 9., 1999. 3. ~ 2002. 1.). 9월 23일 아르놀트 뤼텔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 2006년 10월 9일 취임, 임기 5년.

·**콘버그, 로저 Roger D. Kornberg 1947 ~ 미국 구조 생물학자.**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 진핵 생물(眞核生物)의 유전 정보 전사(轉寫)의 분자적 기초에 관한 연구로, 2006년 노벨 화학상 수상. 디옥시리보 핵산(DNA)의 합성으로, 1959년 노벨 의학·생리학상을 수상한 아서 콘버그(Arthur Kornberg)의 아들. 노벨상 부자 수상은 일곱 번째.

·**투라 슈웨 만 Thura Shwe Mann 1947 ~ 미얀마 군 최고 사령관.** 대장. 전 육해공군 작전 조정관. 군정 서열 3위. 2006년 9월 현직.

·**투포우 5세, 시아오시 Siao Si Tupou V 1948 ~ 통가 국왕.** 전 성명 시아오시 타우파하우 마누마타웅고 투쿠아호 투포우 5세(Siao Si Taufā'ahau Manumataongo Tuku'aho Tupou V). 타우파하우 투포우 4세(Taufā'ahau Tupou IV)의 타계(2006. 9. 10.)로 투포우토아(Tupouto'a) 왕세자가 9월 11일 왕위 계승. 전 외교 장관 겸 국방 장관(1979. ~ 1998.).

·**파무크, 오르한 Orhan Pamuk 1952 ~ 터키 작가.** 고향 이스탄불의 음울한 영혼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화 간의 충돌과 교차에 관한 새로운 상징들을 찾아냈다고 지적, 200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10. 12.). 1982년 “제브데트 씨와 그의 아들들”로 문단에 데뷔. 대표작 “내 이름은 빨강”(1998)은 이슬람 원리주의의 독단과 폭력을 규탄, 한국을 비롯한 2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 이슬람 원리주의와 세속주의의 충돌을 묘사한 “눈”(2002)도 국내에서 번역. 그 밖의 작품은 “고요한 집”(1984), “하얀 성”(1985, 국내 번역), “흑서”(1990), “새로운 인생”(1994, 국내 번역), “이스탄불, 추억과 도시”(2005), “순수 박물관”(2007년 출간 예정). 터키와 이슬람 사회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주창해 온 그는 2005년 2월 오스만 튀르크 시대 ‘아르메니아 인 학살’을 고발한 발언으로 터키 당국으로부터 국가 모욕죄로 기소되어, 국제적 항의 운동이 일어난 일이 있음.

·**파이어, 앤드루 Andrew Z. Fire 1959 ~ 미국 과학자.**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 두 가닥으로 이뤄진 ‘이중 나선 리보 핵산(RNA)’에 의해 유전자 발현

이 억제되는 ‘아르엔에이(RNA) 간섭’ 현상을 선충(線蟲)에서 발견한 업적으로, 2006년 노벨 의학·생리학상을 크레이그 멜로(Craig Mello)와 공동 수상(10. 2.).

·**페스트, 요아힘 Joachim Fest 1927~2006 독일 역사가, 작가.** 1973년 전기 “히틀러”를 출판. 베스트셀러로, 독일에서 실증에 기초한 평론 수법으로 히틀러 연구의 제일인자로 평가. 2002년의 “멸망(테어 운터강)”을 영화화(2004)한 “히틀러, 최후의 12일간……”. 자서전 “나는 하지 않는다(이히 니 히트)”는 사망 직후 발매.

·**펠프스, 에드먼드 Edmund S. Phelps 1933~ 미국 경제학자.**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 거시 경제 정책의 장·단기 효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힌 공로로, 200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10. 9.).

·**후유시바 데쓰조 冬柴鐵三 1936~ 일본 정치가.** 국토 교통상(2006. 9. 26. ~). 전 변호사. 공명당 간사장. 중의원 결산 위원장, 자치 정부 차관. 중의원 7선.

[지 명]

·**네피도 Naypyidaw.** 미얀마 군사 정권의 초 산(Kyaw Hsan) 정보 장관은 수도 기능 이전을 진행해 온 중부 네피도(핀마나)를 양곤(Yangon)을 대신한 정식 수도라고 천명(2006. 10. 10.) 군정은 2005년 가을부터 양곤 북쪽 약 320km의 핀마나(Pyinmana) 근교에 수도 기능 이전을 시작, 핀마나를 포함한 새 행정구로 네피도(왕도를 뜻함)를 신설. 지금까지 군사 본부, 중앙 은행, 대법원 등의 정부 기능 이전을 완료하고 비행장과 수력 발전소도 새로 건설. 2007년 말부터 각국 대사관 이전도 가능하다고 함.

·**수완나품 Suvarnabhumi.** 타이 국제공항. 현재의 돈므앙(Don Muang) 공항 부지보다 5배가 더 큰 대공항으로 연간 승객 수용 능력은 4,500만 명. ‘수완나품’은 타이 어로 ‘황금의 땅’을 뜻함. 방콕에서 동쪽으로 약 35km 교외에 위치. 2006년 9월 28일 개항.

[허리케인 이름(2006년 추가분)]

·**엘버토(Alberto)· 어네스토(Ernesto)**

[아베 연립 내각]

2006년 9월 26일 발족

총 리	아베 신조 安倍晋三 52
총무, 우정 민영화	스가 요시히데 菅 義偉 57
법무	나가세 진엔 長勢甚遠 62
외무(재임)	아소 다로 麻生太郎 66
재무	오미 고지 尾身幸次 73
문부 과학	이부키 분메이 伊吹文明 68
후생 노동	야나기사와 하루오 柳澤伯夫 71
농림 수산	마쓰오카 도시카쓰 松岡利勝 61
경제 산업	아마리 아키라 甘利 明 57
국토 환경	후유시마 데쓰조 冬柴鐵三 70
환경 지구 환경	와카바야시 마사토시 若林正俊 72
관방 납치	시오자키 야스히사 鹽崎恭久 55
국가 공안 방재	미조테 겐세이 溝手顯正 64
방위	규마 후미오 久間章生 65
오кина와북방	다카이치 사나에 高市早苗 45
금융 제도전	야마모토 유지 山本有二 54
경제 재정	오타 히로코 大田弘子 52
행정 개혁	사타 겐이치로 佐田玄一郎 53
규제 개혁 공무원 제도 지역 활성화 도주제(道州制)	

자민당 3역

간사장	나카가와 히데나오 中川秀直 62
정조 회장	나카가와 쇼이치 中川昭一 53
총무 회장	니와 유야 丹羽雄哉 62

총리 보좌관

국가 안전 보장 담당	고이케 유리코 小池百合子 54
경제 재정 담당	네모토 다쿠미 根本 匠 55
납치 문제 담당	나카야마 교코 中山恭子 66
교육 재생 담당	야마다니 에리코 山谷えり子 56
홍보 담당	세코 히로시게 世耕弘成 43

2. 국립국어원 동향

가. 안병희(安秉禧) 초대 국립국어원장 별세



고 안병희 초대, 제2대 원장 사진

초대·제2대 국립국어연구원장을 지낸 안병희(安秉禧) 서울대 명예 교수가 10월 24일 0시 숙환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선생은 1933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건국대 교수를 거쳐 1968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3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국어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평생을 바쳤다. 광복 이후, 일석 이희승, 일사 방중현, 심악 이승녕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국어학 1세대 학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선생은 국어사 자료 연구, 훈민정음 연구, 문법사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논문을 다수 발표함으로써 국어학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선생은 초기에는 참신한 이론으로 국어 문법 체계를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59년 20대의 젊은 나이에 발표한 석사 논문 「15세기 국어의 활용 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는 서구의 구조주의 기술언어학 이론을 우리 옛말에 적용한 것으로, 발표 당시부터 그 이론적 참신함과

기술(記述)의 치밀함으로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지금까지도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필독서가 되고 있다.

선생은 국어사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헌 자료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옛 한글 자료에 대한 서지적 연구도 함께 수행하였다. 학계에서도 선생은 특히 문헌 자료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국어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국어사 연구』(1992), 『국어사 자료 연구』(1992) 등 10여 편의 학술 저서와 100편이 넘는 국어학, 서지학 관련 학술 논문을 남겼는데, 선생의 논저는 논리가 정연할 뿐만 아니라 문체가 특히 간결하여 군더더기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 논문은 발표되는 대로 곧바로 학계의 정설이 되었다.

선생은 1991년에는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 창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초대와 2대에 걸쳐 4년간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뛰어난 실무 처리 능력으로 합리적인 어문 정책을 펴는 한편, 국어 유산의 보존·연구로 국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1999년에 완간된 『표준국어대사전』도 그의 원장 재직 시절인 1992년에 편찬 사업이 시작된 것이었다.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 중에서 장기 사업으로 추진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사업은 특기할 만하다. 선생은 당시 문화 관련 사업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펼침으로써 국어 학계의 역량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종합적이고도 방대한 분량의 국어사전이 완간되어 국민의 국어 생활에 길잡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기틀을 다진 공이 매우 크다.

또한, 선생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국어심의회 한글 분과 위원으로 있으면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제정과 일부 수정 심의에 참여하여 어문 규범의 확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 밖에도 국어학회와 한국서지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진단학회와 국어학회의 평의원, 한국서지학회 고문으로서 국어학과 서지학의 연구에 공헌해 왔고, 문화재 위원(국보 지정 분과)으로도 활동하여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존과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월봉저작상(1993), 3·1 문화상(1996), 세종문화상(2002), 동숭학술상(2004)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이돈숙 여사, 아들 장훈

(안장훈 내과 병원 원장), 용훈(주엠실리콘 과장)과 딸 경화(서울대 언어 교육원 연구원) 등 2남 1녀가 있다.

나. 무궁나라 어린이 기자단 국립국어원 방문

무궁나라(<http://www.mugunghwa.or.kr>) 어린이 기자단이 10월 27일 오후 4시경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여 이상규 국립국어원장과 면담을 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으로 구성된 12명의 어린이 기자단은 평소 국어 정책 기관으로서의 국립국어원의 활동 내용에 많은 호기심을 나타내 보였고, 국어 자체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이상규 원장과의 면담에서 어린이 기자들은 국립국어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어 순화와 관련된 사업은 무엇인지, 사전은 어떻게 만드는지 등의 국립국어원에 대한 질문과 국어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국어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상규 원장은 이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면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국립국어원 원장(왼쪽)이 무궁나라 기자단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무궁나라 어린이 기자단이 국립국어원 1층 국어 전시관을 보고 있는 모습

원장 면담 후에는 국립국어원 홍보출판팀의 안내로 국립국어원의 시설물을 둘러보았다.

어린이 기자단의 질문 내용은 ‘무궁나라(<http://www.mugunghwa.or.kr/>)’ 누리집에서 ‘무궁화 어린이 기자-기사 보기’를 보면 된다.

다. 해외 한국학 사서 국립국어원 방문

해외 한국학 관련 사서들이 2006년 11월 1일 오전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권경상)에서 벌이고 있는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전문 사서들로,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지의 10개국에서 모두 19명이 참가하였다. 이 워크숍은 해외 한국학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도서관 정보 자원의 공동 활용 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연례행사



해외 한국학 사서들에게 손희하 부장(왼쪽)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인데, 올해는 2006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 해외 한국학 사서들은 이 워크숍의 일환으로 한국의 어문 정책 기관인 국립국어원을 방문한 것으로, 손희하 언어정책부장의 인사말, 이승재 국어정책팀장의 ‘한국의 국어 정책’ 강의를 들은 후, 홍보출판팀의 안내로 국립국어원의 시설을 둘러보았다.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은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등 세계 10개국의 국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학 관련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 19명이 참가하여 한국학 관련 주요 정보원에 대한 이해와 고문헌 자료의 보존을 위한 관리 실습, 한국학 관련 기관의 방문, 경주 지역 문화유적 답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라.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원의 방문

2003년 10월 국립국어원이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와 체결한 학술 교류 협약에 따라,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연구원 노야마 히로시(野山 広) 씨가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였다.



국립국어원 1층 세종대왕상 앞에서의 해외 한국학 사서들 기념 사진

이번에 방문한 연구원은 일본어교육기반 정보센터 정비보급그룹장을 맡고 있는 노야마 히로시(野山 広) 씨로, 국어원을 방문하여 일본 내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본어 교육 및 일본 문화 교육 현황과 사업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국립국어원의 연구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국내 체류 일정>

날짜	시간	계획	비고
11월 8일	오후	입국, 숙소로 이동	김포공항, CJ I-House
11월 9일	09:00~18:00	관련 기관 방문	일본 문화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11월 10일	10:00~10:30	국어원 방문. 상호 인사 및 청사 시찰	
	10:30~11:30	양 기관 성과 소개 및 상호 협력 방안 협의	국어원 원장실
	11:30~13:00	점심 식사	국어원 인근 일식당
	13:30~15:00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 관련 강연	국어원 중1층 세미나실
	15:00~17:00	한국어세계화재단 방문	고려대 한국관

	18:00~20:00	환영 만찬 참석	고려대 국제관
11월 11일	09:30~18:30	국제학술대회 참석	고려대 국제관
	18:30~20:00	대회 만찬 참석	고려대 인근 한식당
11월 12일	오전	출국	김포공항



노야마 히로시(野山 広) 씨의 발표 모습



노야마 히로시(野山 広)씨(왼쪽에서 네 번째)와 국립국어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의 기념 사진

마. 문화관광부 제2회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결과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제2회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 다 음 -

○ 수입 인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신청 등급을 여러 개 적은 경우, 서명이 없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한국어 교원 2급 심사 신청자

○ 전공이 ‘한국어 교육’ 관련으로 명시된 경우만 심사하였다.

○ 심사 대상자의 성적 증명서를 통해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3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5영역) 과목 수강 여부를 점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학(학부 졸업)의 경우

- 18학점 이상 이수: 2급 자격 인정
- 10~17학점 이수: 3급 자격 인정
- 9학점 이하: 불합격

- 대학원(석사)의 경우

- 8학점 이상 이수: 2급 자격 인정
- 6~7학점 이수: 3급 자격 인정
- 5학점 이하: 불합격

○ ‘한국어 교육 실습’(5영역)에서만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총이수 학점이 기준을 넘어도 불합격 처리하였다.

3. 한국어 교원 3급 심사 신청자

○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

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불합격 처리하였다.

○ 증명서의 문서 번호, 기관장의 직인이 없거나 직접 손으로 쓴 것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차후 실사를 할 예정이다. 만약 경력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수나 교육 기관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미 부여된 한국어 교원 자격이 취소됨은 물론 신청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알림.

4. 자격증 교부: 11월 30일 합격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문의 전화: 02-2669-9753, 02-2669-9725

전자 우편: k-teacher@mct.go.kr

3. 국어 진흥 활동

가. 교육인적자원부, 업무 협정 체결 공로자 표창

교과서 표현·표기 감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와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의 협정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국립국어원의 연구사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표창을 받게 되었다.

<수상자 인적 사항>

- 이운영 언어정책부 학예연구사
- 이병규 국어실태부 학예연구사
- 김문오 국어진흥부 학예연구사

<표창장 수여 주체>

-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들 수상자들은 국립국어원과 교육부와의 업무 협정 체결에 앞서, 기존의 교과서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 차이를 조사하여 업무 협정



이운영 학예연구사(오른쪽)가 상장 받는 모습



김문오 학예연구사(오른쪽)가 상장 받는 모습



이병규 학예연구사(오른쪽)가 상장 받는 모습

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고, 또한 협정 체결에 필요한 회의 준비 및 제반 실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협정 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시상은 2006년 10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경, 국립국어원 원장실에서 이상규 원장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대신하여 수상자들에게 표창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국립국어원, (주)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와 업무 협정 체결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다듬고 있는 다량의 국어 정보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트닷컴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20일 11시, 네이트닷컴의 운영사인 (주)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사옥(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에서 두 기관의



국립국어원 김세중 부장(오른쪽)과 (주)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업무 협정 모습

관계자가 만나 이에 대한 업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식에서는 상호 자료 제공, 이용 상황에 대한 공동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정서를 교환하였다.

국립국어원은 국어 어문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서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BS, MBC, SBS, EBS, 엔에이치엔(주)(네이버), (주)지어소프트, (주)엠포스 등과 포괄적인 업무 협정을 맺어 국어 연구 자료와 국어 정책 자료를 더욱 광범위하게 보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다.

이번에 (주)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와 업무 협정을 맺은 국립국어원은 국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터넷 사이트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더욱 다양한 포털 사이트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더욱 폭넓고 빠르게 파악하게 될 전망이다.

다. 한국사회언어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립국어원은 한국사회언어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주제: 언어 정책, 언어 사용 그리고 교육(Language Policy, Use, and Education)
- 일시: 2006년 11월 11일 (토) 09:45-18:30
-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ies Hall)

9:00~9:45		등록(Registration)			
9:45~10:00		개회/인사말(Opening Remarks)		사회: 김규현(경희대)	
		이상규(국립국어원장)/김하수(한국사회언어학회회장)			
10:00~10:50		전체 회의 발표 I(Plenary Talk I)		사회: 김용진(숭실대)	
		Edward Finega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ollywood Pictures and Springfield Dictionaries: Setting Language Standards in the USA"			
10:50~11:00		쉬는 시간(Coffee Break)			
오전 분과 발표(Morning Concurrent Sessions)					
분과		I-1	II-1	III-1	IV-1
11:00~11:30	사회	조남호(국립국어원)	김정숙(고려대)	박용예(서울대)	허명혜(고려대)
	논문발표	Ueda Kozi (Osaka Univ.) "어떻게"의 외국어 교육과 '왜'의 외국어 교육 - NHK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보는 제작자의 의식"	노형남(고려대) "Language Planning at the Grass Roots not to Suffer Contramundum Heavy Losses in the National Spirit"	Mahmut Ertan Gökmen (Ankara Univ.) "Arguments on Raising the Intercultural Competency Level on Korean Teaching"	황선혜(숙명여대) "Elements of Speech Community for English Language Use"
	토론	정희원(국립국어원)	조태린(국립국어원)	유경애(중앙대)	박준언(숭실대)
	논문발표	Mitsui Takashi (Toshisha Univ.)	김희숙(청주대) "Why Cannot	Marilyn Plumlee (Hankuk Univ. of	김지영(경희대) "Achieving

11:30~12:00		“일본 식민지 지배와 언어 정책 - 조선 총독부 ‘언문철자법’을 통해서”	We Support the Idea of Officializing English?”	Foreign Studies) and Jiha Hwang (*posthumous) “Contrasting Politeness Strategies on American and Korean Celebrity Talk Shows”	Excellence and Equity in the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 R E A C H Approach”
	토 론	허재영(건국대)	김세중(국립국어원)	유석훈(고려대)	심진영(열린사이버대)
12:00~12:30	논문 발표	Yamada Kanto (Hiroshima Univ.) “식민지 시에 조선어를 배운 일본인”	양명희(국립국어원) “한국인의 언어의식의 변화”	Kim Dammers (웨딩컨대/건양대) “Gestures and Body Language Used in Public Greetings and Departures in Ethiopia”	강애진(숙명여대) “A TBI Practice with Task Involvement being Emphasized”
	토 론	신혜경(서강대)	이홍식(숙명여대)	김경석(경기대)	한호(아주대)
12:30~13:40		점심 시간(Lunch)			
13:40~14:10		특강(Special Lecture) 사회: 박용환(해사)			
		Kim, Chin W.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Language Policies or Language Politics?: Linguistic Engineering in Two Koreas”			

14:10~15:00		전체 회의 발표 II(Plenary Talk II) 사회: 홍민표(계명대)			
		Noyama Hiroshi (National Institute for Japanese Language) "Language Policy for Immigrants in a Rural Community in Japan: A Case of the Support System of Japanese Language Learning for Spouses of International Marriage" (일본어-한국어 통역)			
15:00~15:10		쉬는 시간(Coffee Break)			
오후 분과 발표(Afternoon Concurrent Sessions)					
분 과		I-2	II-2	III-2	IV-2
	사 회	윤성규(선문대)	이경우(호서대)	박경래(세명대)	송경숙(동의대)
	논문 발표	Ishikawa Ryoko (Nara Women's Univ.)	김수정(마쓰야마대) "일본인 학	김용진(숭실대) "Phraseology of	이정복(대구대) "한국어 사전에

15:10 ~ 15:40		Univ.) “가나자와 쇼자부 로와 한국어 교 육”	습자를 위한 한자 어 교육”	‘love’ in Korean and American Pop Lyrics”	나타난 성차별 언 어”
	토론	강희숙(조선대)	김민애(서울대)	김경애(한경대)	이은경(홍익대)
15:40 ~ 16:10	논문 발표	Zhao Yonghong (중앙민족대/건양 대) “ C h i n e s e Address Forms in V e r b a l Communication”	Saito Akemi (한림대) “용기와 공간의 공유 의식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윤사연(중앙대) “한-일 대중가요 의 표기 변화 연 구”	김수현(이화여대) “방송에서의 여 성의 역할과 여성 에 관한 언어 표 현 분석”
	토론	(중국어-한국어 통 역)	이정영옥(경희대)	송현아(서강대)	정희창(국립국어 원)
16:10 ~ 16:40	논문 발표	Yan Xiaoyun (운남사범대/건양 대) “Study of the Pronunciation Teaching of Korean and Chinese”			
	토론	(중국어-한국어 통 역)			
16:40~16:50		쉬는 시간(Coffee Break)			
16:50~17:40		전체 회의 발표 III(Plenary Talk III) 사회: 김혜숙(건양대)			
		Lionel Hock Ann We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Language Policy and Globalization: On the Management of English”			
17:40~18:30		폐회 및 정기 총회(Closing Remarks and General Meeting)			
18:30~		환영 만찬(Reception)			

라. 민족 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국립국어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가 2006년 12월 1일(금)부터 12월 2일(토)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렸다.

- ☐ 대주제: 통일의 조건, 민족 문화 동질성
- ☐ 일 시: 2006. 12. 1.(금) ~ 2.(토)
- ☐ 장 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첨단강의실
- ☐ 주 최: 한국국학진흥원, 국립국어원
- ☐ 후 원: 문화관광부

1. 학술대회 일정

1) 2006. 12. 1.(금, 1일 차)

내 용	시간	세부 내용	비고
학술 대회 개회식	13:30~13:45	▶ 개회사-심우영(한국국학진흥원장) ▶ 환영사-이상규(국립국어원장) ▶ 축 사-김명곤(문화관광부 장관) ▶ 축 사-김관용(경상북도지사)	
기조 강연	13:45~14:05	▶ 동질성에 대한 한 발언 - 고은(세계한민족작가연합회장, 시인)	
학술 대회 주제 발표 (1) 분단 국 가의 통일 과 민족 문 화	14:10~15:10	▶ 단절이 아닌 분리 - 독일의 냉전 경험과 오늘날의 정신적 유산 - Thomas Lindenberger(포츠담대학)	
	15:10~16:10	▶ 예멘의 통일과 민족 문화 동질화 - Ahmed M. Al-Kibsi(사나대학)	
	16:10~16:30	▶ 휴 식	
	16:30~17:30	▶ 국가 통일에 대한 민족 문화의 역할 - 孔祥林(중국공자연구원)	
	17:30~18:00	▶ 남한과 북한, 통일의 문화적 조건 - 박신의(경희대학교)	
환영 만찬	18:00~19:30		

2) 2006. 12. 2(토, 2일차)

내 용	시간	세부 내용	비고
학술 대회 주제 발표 (2) 민족 문 화 동질성 회복을 위 한 방안	10:00~10:30	▶ 문화 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 방안 - 강석승(통일교육원)	
	10:30~11:00	▶ 교육을 통한 동질성 회복 방안 - 유영옥(경기대학교)	
	11:00~11:10	▶ 휴 식	
	11:10~11:40	▶ 남북의 언어 차이와 동질성 회복 방안 - 최용기(국립국어원)	
	11:40~12:10	▶ 고구려·발해사 공동 연구를 통한 동질성 회복 방안 - 임상선(동북아연구재단)	
오찬 및 휴식	12:10~13:30		
학술 대회 주제 발표 (3) 동질성 회복을 위 한 효율적 인 기초조 사 방법론	13:30~14:00	▶ 동북아 제 국가의 역사 왜곡 대처 방안 - 김대길(국사편찬위원회)	
	14:00~14:30	▶ 새로운 역사 인식을 위한 기초 조사 방안 - 김순석(한국국학진흥원)	
	14:30~14:40	▶ 휴 식	
	14:40~15:10	▶ 남과 북의 언어 통일을 지향하는 사전 편찬 방안 - 한용운(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	
	15:10~15:40	▶ 남북한 통일 문화를 위한 민속학적 접근 - 김미영(한국국학진흥원)	
종합 토론	16:00~17:50	▶ 2부, 3부 발표자 종합 토론	